

報道資料



보험개발원

제공일자	2006년 5월 4일
담당자	이태열 실장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 총 6 매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는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동 자료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상품 및 판매 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다양화 추세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

전국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006년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4.7%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3년에 이미 보험가입률이 93.4%에 이르렀음을 감안한다면 가구당 가입 기준으로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와 이에 부응한 다양한 신상품의 등장으로 시장의 구조는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생명보험에서는 변액보험이 월평균 26.4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저축성/연금보험이 16.0만원, 통합보험이 10.8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 및 <표 2> 참조).

구입 경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보험상품에서 전통채널인 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인터넷, 방카슈랑스 등 신판매채널에 대한 선호 경향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선호도는 자동차보험(13.0%)뿐만 아니라, 종신보험(12.4%),

건강보험(12.8%), 연금보험(10.2%), 상해보험(8.3%) 등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에 대한 인터넷 채널 선호도는 2004년 10%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방카슈랑스를 통한 상품 구입은 저축성보험(30.0%), 변액보험(14.4%), 연금보험(11.9%), 통합보험(15.4%) 등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과거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민영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민영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47.2%, 소득보상보험은 46.9%, 민영의료보험은 32.5%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그러나, 노후생활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로 의료비 등 건강관련 불안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감안할 때, 향후 민영의료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병을 숨기거나 사고발생 이후 보험을 계약하는 행위, 자동차 사고를 기회로 평소 질환을 청구하는 행위, 의사와 결탁한 장해급수 조정 등의 사기행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만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보험사기의 증가로 인해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1.8%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험 사기의 근절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표 5> 참조).

◆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1. 보험가입실태

- 전국의 1,200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4.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입률 88.3%, 손해보험 가입률 79.8%로 소폭 증가함.
 - 가구당 평균 납입보험료는 연간 413만원(월평균 34.4만원)으로 나타남(생명보험 335.3만원, 손해보험 77.7만원).
- 납입보험료는 생명보험에서는 변액보험이 월평균 26.4만원로 가장 높고,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연평균 61.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 생명보험 상품별 월평균 납입보험료 추이(만원)

구분	건강중점 보장보험	상해/재해 중점 보장보험	사망중점 보장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어린이/ 교육보험	변액보험
보험료	10.8	6.7	19.8	20.6	14.7	8.7	26.4

주 : 일시납 보험료 제외 실적임.

<표 2> 손해보험 상품별 월평균 납입보험료 추이(만원)

구 분	자동차	장기보험						상해
		운전자/ 상해	일반건강 /어린이	민영 의료	종합	저축성 /연금	통합	
보험료	61.3	5.9	7.0	5.6	7.6	16.0	10.8	9.9

주 : 일시납 보험료 제외 실적이며, 자동차보험은 연평균 보험료임.

2. 향후 보험상품별 선호 가입경로

- 상품별로 선호 가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서 설계사를 통한 가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및 방카슈랑스 등 신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해지고 있음.

-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 가입 시 인터넷을 통한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종신보험은 4.8%→12.4%, 연금보험 3.8→10.2%, 건강보험 4.7%→12.8% 등 가입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보험종목별 선호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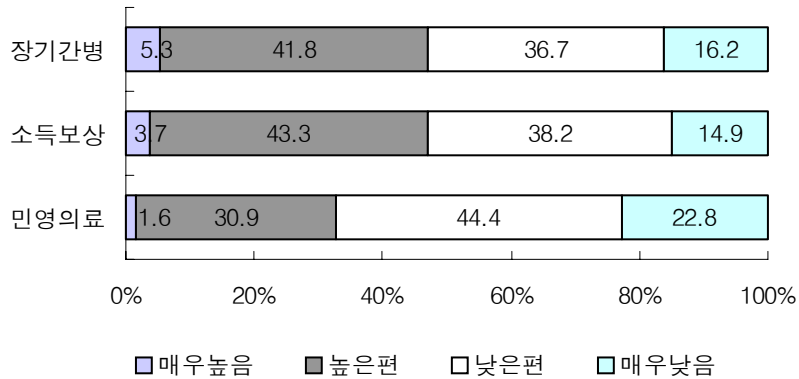
구 분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	보험사 인터넷	통신 판매	공제 조합	우체국	홈쇼핑	은행 증권	기타
자동차보험	75.5 (68.1)	7.6 (8.4)	1.1 (1.5)	13.0 (15.3)	1.2 (2.2)	0.1 (1.8)	0.1 (1.1)	0.4 -	1.0 (1.7)	-
종신보험	73.6 (73.6)	0.4 (5.7)	1.2 (2.0)	12.4 (4.8)	0.8 (0.3)	0.4 (3.3)	0.8 (3.8)	4.0 -	6.0 (6.7)	0.4
건강보험	65.5 (62.3)	1.4 (5.8)	1.7 (1.7)	12.8 (4.7)	0.7 (1.0)	2.4 (6.5)	2.1 (5.2)	8.6 -	4.1 (12.7)	0.7
변액보험	71.2	1.9	-	8.7	1.0	-	-	2.9	14.4	-
연금보험	68.6 (61.0)	0.4 (4.6)	1.8 (1.4)	10.2 (3.8)	1.3 (0.6)	1.3 (4.7)	1.3 (6.5)	3.1 -	11.9 (17.0)	-
저축성보험	52.0 (41.6)	1.0 (3.0)	1.0 (1.1)	4.0 (3.8)	0.5 (0.4)	6.5 (9.6)	3.0 (7.8)	1.5 -	30.0 (32.7)	0.5
상해보험	67.8 (69.8)	2.8 (6.6)	-	8.3 (8.3)	2.8 (1.1)	2.8 (3.4)	1.7 (4.3)	8.3 -	5.6 (5.4)	-
종합보험	63.2	3.2	1.1	8.4	1.1	5.3	2.1	4.2	11.6	-
통합보험	60.3	1.3	-	9.0	1.3	3.8	1.3	7.7	15.4	-

주 : ()는 2004년 조사 결과이며, 변액보험, 종합보험, 통합보험에 대한 조사는 2004년 실시되지 않았음.

3. 민영건강보험 관련

-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 조사 결과,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47.2%, 소득보상보험의 가입 의향은 46.9%, 민영의료보험의 가입 의향은 32.5%가 높다고 응답하였음.

<표 4> 민영건강보험 가입 의향(%)



- 노후 생활에서 가장 불안한 점으로 의료비, 신체기능 장애와 같은 건강관련 불안이 절반 이상 (53.3%)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득감소, 물가상승 등 소득관련 불안(32.6%), 배우자사망, 본인의 장수 등 사망관련 불안(11.2%),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소외 등 정서관련 불안 (2.7%) 순으로 조사됨.
- 상기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민영의료보험의 향후 가입의향은 높은 수준은 아니나, 노후생활의 불안요소로 건강관련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증가된 의료비 부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고려할 때, 증가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기타

□ 노후소득 준비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서는 노후대비 저축·투자라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개인연금인 22.7%, 부동산 투자가 16.3%, 퇴직금이 10.7% 순으로 조사됨. 반면, 아무 대책도 없다는 응답도 17.9%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이 부족한 경우 자녀들에게 의존할 생각이 있는 지에 대해 10명 중 9명 이상 (91.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역모기지

-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아서 노후생활을 하고 사망 후 주택을 금융기관이 처분하는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30.2%, 이용할 의향이 낮다는 응답은 69.8%로 나타남.
- 역모기지론 가입 의향이 낮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주택이 마지막 자산이므로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37.8%)라는 응답과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37.6%)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현재 준비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다’(16.9%),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7.6%) 순임.

□ 보험사기

- 보험사기의 증가로 인해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1.8%로, 모르고 있다(48.3%)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적 태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적 태도

구분	보험금 지급 거절하고 형사처벌	보험금만 지급 거절	보험회사가 목인하고 보상	본인도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 있다	모름/ 무응답
지병을 숨기고 건강보험 계약하는 행위	21.0	62.8	10.0	6.2	-
사고발생이후 보험계약하는 행위	29.3	59.5	7.6	3.6	0.1
손해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25.1	62.7	7.9	4.3	-
자동차사고를 기회로 평소 질환 치료비 청구하는 행위	28.1	56.4	10.4	5.1	-
의사와 결탁하여 장해급수를 올리는 행위	48.8	42.1	5.5	3.5	0.1
무보험 운전자가 조수석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47.6	41.6	6.5	4.3	0.1
고의방화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72.6	22.4	3.8	1.3	-